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대회 리스크 대책

미국은 이번 대회를 국가 특별안전행사로 지정하여 국가의 위신이 걸린 안전경비태세를 펼쳤다고 보도하였다. 리스크대책과 관련하여 2001년 1월10일에 백악관 공보실이 발표한 내용을 소개한다.

2002년 2월8일부터 17일간에 걸쳐서 2002 동계올림픽대회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되었다. 올림픽대회에서 일어났던 큰 사고로는 1972년 독일의 하계 뮌헨올림픽 테러사건 그리고 1996년 미국의 애틀랜타 올림픽 폭발사건을 들 수 있다. 미국이 이 대회의 개최국으로서 지난해 일어났던 미증유의 911 테러사건을 경험한 교훈과 과거 올림픽의 대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리스크 대책을 준비하여 대회 개최에 임하였는가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서 임박한 우리나라의 월드컵 안전대책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미국은 이번 대회를 국가 특별안전행사로 지정하여 국가의 위신이 걸린 안전경비태세를 펼쳤다고 보도하였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 FBI(미 연방수사국), USSS(미 시큐리티서비스: 재무부) 및 FEMA(미 재난관리청: 독립기관) 등 3개 기관이 리스크대책의 주역을 맡고 있다. 그 밖의 거의 모든 부처도 각 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문자 그대로 거국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의 소개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3개 기관은 각각의 임무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있으나 본고는 2001년 1월10일에 백악관 공보실이

발표한 내용을 소개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시큐리티서비스의 직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재무부에는 국제담당, 국내재정담당 및 범집행 등 3대 직무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각 분야의 책임자는 차관보이다. 그 가운데 범집행 담당부문 밑에 시큐리티서비스를 비롯하여 관세, 알콜·담배·화기 및 연방집행훈련소 등 4개 국(局)이 있다.

시큐리티서비스의 임무는 ①내외요인 및 그 가족의 경호 ②범죄에 관한 조사와 집행 등 2가지로 대별되며 이번 대회는 위 2가지 직무의 필요성으로부터 분담되었다.

아래 내용은 본 대회에 따른 뉴스릴리스에서 발췌하여 소개한다.

1. 리스크 대책의 주요 3개 기관과 임무

○ USSS(미합중국 시큐리티서비스)

대회 안전경비의 기획, 계획과 실천을 담당한다. 1999년 8월 개최된 애틀랜타올림픽대회 시 처음으로 국가특별안전행사(NSSE)로 지정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예를 들면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대회 리스크 대책

2000년에 뉴욕시에서 개최된 UN 천년제(祭) 정상회의, 2001년에 워싱턴DC에서 거행된 대통령취임식에서도 임무를 수행하였다.

○ FBI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조사하고 방지하는 위기관리를 실행하여 테러리스트를 체포하는 권한을 가진다.

○ FEMA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불가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기관과 협조한다.

2. 다수의 연방기관이 긴급유사체제, 대응 및 복구회복을 지원

○ 국방부

4,500명의 남녀 병사를 파견하여 시와 연방국을 지원한다. 담당업무는 각종 유통·조달의 전략지도, 통신, 폭발물탐사, 항공지원 등이다.

○ 미국 세관

상공을 순찰하여 영공안전을 도모한다.

○ 이민 귀화국

올림픽대회장의 안전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명 이상의 국경순찰대원을 파견한다.

○ 미국 검찰집행관

100명 이상의 부 집행관의 파견과 특정 올림픽 대회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장비를 보낸다. 그리고 중대한 의료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국 긴급의료팀의 안전경비를 수행한다.

○ FEMA

국가긴급대응과 복수(複數)의 도시수색구출기동대 지원을 위해 유타주에 주재(駐在)한다.

○ 알콜·담배·화기국

폭발과 방화범죄를 방지, 금지, 탐사하기 위

해 FBI에 협력한다.

○ FBI

방사능과 화학·생물병기의 재료를 발견·분석하기 위해 이동실험실도 운영한다.

○ 에너지부

솔트레이크시 부근에 위협에너지시설을 감시하며 핵물질 대응팀을 대기시킨다.

○ 환경보호국

주와 시의 위험물취급팀을 지원한다

○ 후생부

생화학테러위협에 대한 위기대응을 조정하여 FBI를 지원한다. 이 부에서는 1팀 5인으로 편성된 의료팀을 18개 팀과 36인으로 편성된 국가의료대응팀을 한팀 배치한다

○ 의료관리센터

긴급대응 조정관, 시험전문가와 그 밖의 전문가를 현장에 상주시킨다.

○ 식품의약국

올림픽촌이나 그 밖의 대회장내에 식품안전 검사를 지휘한다.

○ 농무부

다수의 회장에서 물자수송관리지원과 안전 경비를 담당한다. 100명 이상의 삼림경비집행관이 경사면이나 산 주변을 1일 24시간 체제로 경비한다.

○ 국립공원국

주로 활강, 크로스컨츄리스키 및 봅슬레 등의 경기가 행해지는 옥외대회장에 요원과 전문가를 파견한다.

○ 운수성

솔트레이크 시내와 주변의 교통이동의 확보나 만일의 사태에는 동 지구로부터 사람들을 피난시킨다. 또 선수와 경기용품의 수송에 대응한다.

3. 세계레벨의 선수와 팀도 실천에는 주도면밀한 준비의 필요성 인지

○ 2000년 11월 FBI와 유타주 올림픽공공안전사령부는 양자가 지휘하는 통합사령연습에 최신 및 선진통신시스템을 시험하였다.

○ 2001년 4월, 1600명의 경비요원에 대한 실지훈련이 올림픽극장에서 시행되었다. 그 모의연습에는 테러리스트공격 봉쇄 및 위기관리 훈련이 포함되었다.

4. 보다 명확히 보이는 것은 안전도가 향상되었다는 증거

○ 솔트레이크시를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은 안전하다는 것 뿐 아니라 안전하게 느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관련한 많은 안전경비는 손바닥 보이듯 훤히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야 잠재적 위협의 사전 저지에 도움이 된다 그 예를 들어 보자.

- ▶ 2월 8일부터 24일까지 솔트레이크시 및 전체 올림픽대회장 상공에 반경 45마일 (72Km)에 비행제한구역을 설정한다.
- ▶ 무장한 유타주 병력이 공항터미널을 순찰한다.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에서는 공항의 전체 화물에 대해 폭발물 검사를 실시한다
- ▶ 동계올림픽에서는 처음으로 전 대회장에 약 1,000대의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여 전체 방문자를 검사한다
- ▶ 선수와 대회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지역에도 생물화학 측정스캐너를 설치하여 선수와 대회관계자를 확인한다.
- ▶ 전략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로 방문자의 왕

래를 기록한다.

- ▶ 휴대 X선 기자재로 의심되는 우편물을 검사한다.
- ▶ 자동차는 대회장 내외로 지정된 건물의 주변 300마일 (약 90Km)에 근접할 수 없다.

결론 및 소감

“우리는 안전한 올림픽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을 함부로 약속을 할 수는 없다”라고 유타주 주지사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의 노력은 리스크를 경감할 수는 있으나 리스크를 제거할 수는 없다」. 즉 미국은 공격을 발견하기 위해,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대단히 예측이 어려운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많은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만전의 체제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미국에서 리스크를 경감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결국 선수는 물론 대회관계자 및 방문자도 각종의 주의 사항이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 스스로 리스크 대책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다. 각 부서의 총동원방식의 안전대책 참여 방식은 우리에게도 참고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대책이야말로 안전성이 높은 것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장병의 순찰이나 금속탐지거나 이동실험실 등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각 부의 총동원이라는 전략도 포함된다. 여러 가지 모양의 리스크에 각 부처의 전문가 팀이 즉시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안심감을 갖게 할 것이다.㉞

— 일본보험매일신문

— 정리: 연구건설팀부 과장대우 김광섭